

MVP 박병호
신인왕 서건창
'인생 역전 홈런'



광주일보 출신 신인왕 서건창



5일 오후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2012 팔도 프로야구 패너트레이스 시상식에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넥센 박병호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LG서 나란히 이적 ... 선수생활 갈림길 ... 넥센서 제2의 야구 인생 펼쳐 '영광'

박병호 "내년엔 가을야구 하겠다"
서건창 "이종범 선배처럼 되고파"

넥센 히어로즈의 4번 타자 박병호(26)가 2012 팔도프로야구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를 안았다.
흥련·타점·장타율 3관왕인 박병호가 5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MVP·신인왕 시상식에서 한국야구기자회의 투표 개표 결과 총 유효표 91표 중 73표를 획득해 장원삼(삼성·8표), 브랜든 나이트(넥센·5표), 김태균(한화·5표)을 크게 따돌리고 MVP에 선정됐다.
신인왕 투표에서는 광주일보 출신의 넥센 내야수 서건창(23)이 91표 중 79표를 휩쓸어 박지훈(KIA·7표), 최성훈(LG·3표) 이지영(삼성·2표)을 압도적인 표차로 제압했다.
2008년 창당한 넥센은 5번째로 MVP와

신인왕을 휩쓸어 겹경사를 누렸다. 1985년 해태(김성환·이순철), 1993년 삼성(김성래·양준혁), 2006년 한화(류현진 첫 동시 석권), 2007년 두산(리오스·임태훈)이 MVP와 신인왕을 석권했다.
성남고를 졸업하고 2005년 LG에서 데뷔한 박병호는 지난해 중반 넥센으로 이적한 뒤, 올 시즌 흥련 31방을 쏘아올리고 타점 105개를 수확했다. 장타율(0.561)에서도 1위에 올라 타격 3관왕을 달성했다. 도루 20개를 기록해 역대 35번째로 20홈런·20도루 클럽에 가입하기도 했다.
박병호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 2000만원을 부상으로 받았다.
박병호는 "시상식 전까지 설레거나 그런

마음 없이 편했다. 그런데 선수를 앉아있는 자리에 같이 있으면 손에 땀도 나고 긴장도 했다"며 "2군에서 났 때는 몰랐는데, 1군에서 풀타임을 소화한 올해에는 포스트 시즌 경기를 보면서 시합에 나가고 싶어 몸이 근질거릴 정도로 책임감이 생겼다. 내년에는 홈런보다는 타점을 많이 올려 팀 승리에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건창이 신인왕을 수상하면서 2008년 최형우(삼성) 이후 5년 연속 '중고 신인' 계보가 이어졌다.
2008년 LG에 입단했다가 지난해 방출된 서건창은 새 동지 넥센에서 주전 2루수와 2번 타자를 꿰차며 타율 0.266, 도루 39개를 수확하고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서건창은 "그간 TV로 보면서 (신인왕을) 타고 싶다는 생각만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긴장된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 나를 뒷바라지 하시느라 어머니가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 LG 방출 후 선수 생활의 갈림길에

섰을 때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신 어머니께 이제부터 열심히 효도하겠다"며 "이종범 선배처럼 야구장에서 항상 팬에게 기대감을 주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날 투타 14개 부문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37세이브를 올린 오승환이 개인 통산 5번째 세이브 타이틀을 가져갔고, 팀 동료 탈보트가 스텔왕(0.824)에 등극했다. 미국 무대에 도전하는 류현진(한화·210개)이 탈삼진왕, 원소 투수 박희승(SK·34개)은 홀드왕에 올랐다.
타자 부문에서 이용규(KIA)가 득점(86점)·도루(44개) 2관왕을 달성했고, 최단타왕은 손아섭(롯데·158개)에게 돌아갔다.
퓨처스타리그(2군리그)에서 맹활약한 북부리그의 투수 윤지웅(다승)·장원준(평균자책점·이상 경찰야구단), 북부리그의 타자 정현석(한화)·김희성(흥련·경찰야구단)·이재원(타점·SK)도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연합뉴스

학강초 박찬호기 전국초등야구 우승

결승서 화순초 꺾어
올 전국대회 3관왕

학강초가 박찬호기 전국초등학교야구대회 정상에 올랐다.
학강초는 5일 광주시립야구장에서 열린 제12회 박찬호기 전국초등학교야구대회 결승에서 전남 대표 화순초를 8-2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KIA 타이거즈배, 회장기 대회에 이어 올 시즌 세 번째 전국대회 우승이다.
최지석의 몸에 맞는 볼과 이재원의 기

습번트로 만들어진 2회말 무사 1·2루, 임태우의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시작으로 학강초가 2회 대거 6점을 뽑는데 성공하며 승기를 잡았다.
결승전 승리투수 임재경이 대회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고, 김창평과 송진익이 각각 최우수투수상과 타격상을 받았다. 임태우·김동은·이현서·이제원·이기범·최지석·김성민에게는 우수선수상이 돌아갔다.
최태영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했고, 이기성 교장은 지도상을 받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용대
광주에 뜬다



2012 광주세계대학배드민턴 선수권 오늘 개막

18개국 173명 선수 참가
염주체육관에서 열전 6일

'금빛 링크' 이용대(24·경기대)가 빛을 발한 광주에서 18개국 대학 최강선수들과 스매싱 대결을 벌인다.
2012 광주세계대학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6일 오후 1시 염주종합체육관에서 개막식을 갖고 6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배드민턴 종목의 대학선수권대회로 중국, 일본, 스페인, 영국, 독일, 러시아 등 18개국에서 173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세계대학선수권대회 최초로 이라크와 우간다 선수들도 참가해 우정과 화합의 무대를 연출한다.
한국은 율리피 금메달리스트인 이용대를 비롯해 김기정, 이동근, 김민기, 강지욱, 이상준, 김수진, 김소영, 김찬미, 이누리, 이은하, 박은진 등 총 12명(남자 6, 여자 6)을 파견한다.
세계 랭킹 26위의 파블로 아비안과 베아트리스 코란레스(이상 스페인)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도 출전해 수준 높은 플레이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회는 6일 오전 9시 단체전 예선을 시작으로 단체전과 개인전 6개 종목(남·여 단식, 남·여 복식, 혼합복식, 단체전)의 대결로 전개된다. 8일 단체전 결승전이 열리며, 11일 개인전 우승자가

가려진다.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대학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대회 조직위원회는 자원봉사자를 포함 총 2200여명의 인원을 투입한다. 또 선수단과 시민들이 함께 하는 배드민턴 축제를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도 마련했다.
6일 개막식에서는 남구 주인들의 오카리나 공연, 축연무(시립국극단), 랍페라(재미영), B-boy공연, 댄스포퍼먼스(빅사이즈), 빛고를 유랑단 등의 공연이 펼쳐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대회 폐막날인 11일에는 시립무용단의 갈라콘서트와 포크그룹 공연이 진행된다.
또 대회기간 광주여대 미용학과와 호남대 뷰티미용학과와 포토존, 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열리며 비엔날레와 연계한 셔틀버스 운행과 함께 입장권 할인 혜택, 광주 FC 축구 무료관람 기회가 제공된다.
관객들을 대상으로 진공청소기, 호텔 숙박권 및 외식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조직위원회는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스포츠를 통한 세계 대학생들의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것 뿐 아니라 2015년 광주U대회와 사전 경험 축적을 위해 치르는 것이다"며 "경기시설, 자원봉사자, 인력, 경기운영 등 국제대회 운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서재응 "내년 목표는 10승·4강"



오키나와 캠프에서 훈련하고있는 서재응

KIA 마무리 캠프서 구슬땀

'나이스 가이' 서재응의 10승 도전은 이미 시작했다.
KIA 서재응은 지난 가을 칼날 제구를 앞세운 아트 피칭으로 4강 탈락의 기로에 선 팀에 마지막 활력을 불어넣었다.
두 경기 연속 완봉승과 함께 선동열 감독이 가지고 있던 선발 무실점 이닝(37)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서재응의 2012년 가을은 화려했다.
서재응은 "전체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시즌이었다. 투구폼을 바꾸면서 직구 구속도 오르고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웠다. 한국에 온 이후 최상의 몸상태였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서재응은 올 시즌 키칭 이후 멈춤동작 없이 바로 공을 던지는 투구폼으로 바꾸며 직구 구속을 올렸다. 특유의 칼날 제구에 직구의 힘이 실리면서 예술피칭이 빛을 발했다. 여기에 선동열 감독에게 전수받은 슬라이더도 수싸움에서도 한결 여유가 생겼다.
전력 업그레이드에 성공한 서재응은 후반기 45이닝 무실점 이닝 행진까지 하며 '아트 피처'라는 명성에 맞는 한 시즌을 보냈다. 하

지만 끝내 달성하지 못한 '10승'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서재응은 "10승을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은 크게 남는다. 감독님과 코치, 선수 등 모든 사람들이 배려하며 기회를 줬는데 목표했던 10승을 이루지 못해 너무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마지막 분전에도 불구하고 가을잔치를 이끌지 못한 책임감도 남았다.
내년 시즌 목표에 대해 "팀 4강과 개인 10승이다"고 밝힌 서재응은 "투구 폼은 큰 틀에서 바뀌는 것은 없다. 올해 구속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투구 폼을 찾았기 때문에 그대로 갈 것이다. 소원이 있다면 최희섭, 김상현, 이병호 등 주축 선수들이 모두 모여 풀시즌을 치렀으면 싶다. 우리 팀의 위력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마무리 캠프는 내년 시즌을 위해 호흡을 고르는 시간이다.
서재응은 "웨이트와 체력훈련 그리고 러닝과 수영 등을 하며 회복훈련을 하는 등 몸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팔꿈치 강화와 하체 보강운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시즌 스프링캠프를 치를 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희섭마무리 캠프 합류
오늘 오키나와로 출국

'빅쇼이' 최희섭(사진)이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에 합류한다.
KIA 타이거즈의 내야수 최희섭이 재활을 끝내고 6일 마무리 캠프가 꾸러진 오키나와로 출국한다.
올 시즌 잠적 소동과 함께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며 고전했던 최희섭은 그동안 산행과 러닝 등으로 몸만들기를 해왔다. 최근에는 예비군 훈련을 마치면서 마무리 캠프 합류준비를 끝냈다.
최희섭은 오키나와에서 선수단과 함께 본격적인 체력훈련과 기술훈련을 하며 명예회복을 위한 2013년을 준비할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일본 챔피언 요미우리

아시아시리즈에 주력 선수 파견

3년 만에 일본프로야구 정상에 복귀한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8일부터 사직구장에서 열리는 아시아 클럽 대항전인 아시아시리즈에 주력 선수를 파견한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투치', '스포츠톨'은 5일 요미우리가 주포 아베 신노스케를 필두로 '테이블 세터' 조노 히사요시, 사카모토 하야토, 거포 무라타 슈이치 등 타선의 주축 4명을 아시아시리즈에 대동한다고 보도했다.
올해 센트럴리그 정규리그, 인터리그, 클라이맥스시리즈(포스트시즌), 일본시리즈에서 거꾸 추배를 든 요미우리는 아시아시리즈까지 제패해 5관왕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조노와 사카모토는 올해 나란히 안타 173

개를 때리고 리그 최다안타 타이틀을 나눠가졌다.
니혼햄 파이터스와 일본시리즈 6경기에서도 두 선수는 안타 9개씩 터뜨리고 안타 경쟁을 벌였다.
리그 타격 1위(타율 0.340), 타점 1위(104개)에 오른 아베도 아시아시리즈 출전에 적극적이다.
일본시리즈에서 오른쪽 무릎을 다친 포수 아베는 아시아시리즈에서는 마스크를 동료에게 내주고 대타로 나설 예정이다.
편지력이 좋은 무라타도 팀에 동행할 예정이어서 우승을 놓고 한국시리즈 우승팀 삼성의 철벽 방패와 요미우리의 차이 정면대결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